

로컬플러스

김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건강강좌

김제시 보건소 소장 박래민(55)는 전북권 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원광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단일질환 국내 시장원인 1위인 심뇌혈관질환은 사망 또는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김으로써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초래함에 따라 주민건강강좌를 통하여 질환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고 위험요인의 올바른 관리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0%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증 등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노력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발생을 자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건강강좌는 전북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원광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청취력을 시작으로, 음, 면, 복지센타 등을 순회하며 지역주민 및 직장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지식 및 건강관리 요령등 전문교육을 통하여 시민건강권리를 실시한다.

특히 건강강좌 내용은 심뇌혈관질환 비로암기,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이해,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대처요령,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 등을 알기 쉽게 교육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생활에 적용함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된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와 내 혈압·혈당 알기 캠페인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일차계 심뇌혈관질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교월동 마을변호사제도 시행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박상문)는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 법률고민 상담과 궁금증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여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10여명의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을 시행하였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평소 금전적 부담과 법률문제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변호사가 교월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시행해 주는 제도이다.

매월 네째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 교월동 주민센터 1층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교월동 주민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은 전화(540-4962)나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와는 달리 그간 우리 주민들이 법률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했다.

이어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법률 사각지대가 없는 교월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드림스타트 위탁이동후원연계

부안군 주민행복지원실(실장 박창구) 드림 스타트는 사회복지법인 유당복지재단(이사장 지승룡)과 후원연계 사업으로 관내 가정위탁 아동 4명의 생활비 및 교육기자재(PC) 등을 지원받아 전달했다.

백신면에 거주하는 김모(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조손 가정으로 지난해 겨울 할머니의 낙상 사고로 인해 병원비 부담 뿐만 아니라 생계활동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던 중 드림 스타트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후 유당 복지재단과 연계해 매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의 후원을 전제적으로 받게 됐다.

또 다른 3명의 이동에게는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기자재(150만 원 상당 PC)를 후원 받아 지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백구 농공단지 분양

부용리 일원 약 10만평 특장차 전문단지 평당 28만 9300원으로 저렴

김제시가 백구면 부용리 1030번지 일원에 32필지 9.09m²(약 10만평) 규모의 특장차전문 단지를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인 가운데 25일 분양공고를 실시한다.

총사업비 306억을 투입 2014년 7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며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입주희망업체를 모집 분양 계획이며 분양가격은 평당 87,520원(평당 289,300원)으로 인근 산단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구농공단지는 군산 터터대우 상용차와 24.8km 원주 현대자동차와 24.4km로 가깝워 국내 특장차생산 최적의 위치에 있으며 인근에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26호선에 인·연접해 있으며, 새민금 산업단지와도 20여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KTX 역간역까지 불과 20분, 군산공항까지 30분, 새민금신항(20년 완공)까지 20분 소요 등으로 고속



도로, 철도 항공, 항만까지 물류수송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공사 초기부터 기업체로부터 많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분양조건으로는 입주계약시 10%,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금 40%, 일시납 또는 1년거치 3년 균분상환(금리8%) 50%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건설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간 75% 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고, 신설 및 이전 보조금(해당기업), 운영자금 지원(1년이상 운영, 해당기업)을 지원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특장차전문단지 내에 5,418m²(건축면적 1,768m²) 부지에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하여 인증장비 12종, 성능시험장비 10종을 갖춘 특장차 자기 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교통안전 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기 인증 검사행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물류비용 등 제반 비용 절감으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은 김제백구특장차 전문단지가 조성되면 약 20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5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전국 유일의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및 자기인증 지원센터 운영으로 김제시가 전국 특장차 생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한권의 책’ 선포식

본격적 시민 독서운동 전개

정읍시가 지난 23일 정읍 기적의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민 독서운동 전개에 나섰다.

선포식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 정읍시의회 의원들과, 정읍교육지원청, 독서동아리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 권의 책’ 독서운동은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한 책을 릴레이식으로 이어 읽고 토론하며, 공감을 나누도록 정서적 일체감과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는 ‘한 권의 책’ 출판 기념행사로, 정읍 기관 학교, 동아리 및 개인별로 기적의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에서 대출받아 선정도서를 읽고 독후감상문 및 감상문, 공모 및 청소년 한 권의 책 축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포식 참석자들은 어린이 대표와 청소년 대표 그리고 시민대표와 김생기 시장이 공동 낭독한 선포문을 통해 독서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독서릴레이 첫 주자로서 16개 독서동아리 대표들이 김 시장으로부터

터 ‘한 권의 책’ 대표도서를 전달 받으며 책 읽기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행사장에서는 세대공감 기타동호회의 기타 연주와 시민대표 세 명의 ‘엄마 인문학’의 주제 부분 낭독이 이어졌고, 특히 박설규 다문화작은도서관관장의 서평 낭독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함께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작가와 참석자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한편 ‘한 권의 책’ 독서운동은 독서릴레이를 비롯 독서 토론회와 어린이 및 청소년 한 권의 책 축제, 북콘서트, 문학기행, 독후감 공모 등으로 연말까지 진행 된다.

독서릴레이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기관 학교, 동아리 및 개인별로 기적의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에서 대출받아 선정도서를 읽고 독후감상문 및 감상문, 공모 및 다양한 공감 나눔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분야별 우수자에게는 시장상과 정읍교육장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http://jmib.jeongeup.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 063-539-6452~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종문 부안예총지회장 지역문화발전 기여 공로

부안군민의 장 문화장 수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는 물론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군민들에게 예술문화욕구 충족해온 부안예총 김종문 지회장(사진)이 디딤돌 마실 축제 개막식에 부인군민의 장 문화장을 받는다.

1978년에 연주생활을 시작한 김지회장은 1985년도에 부안군에 연예인협회를 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로 부안읍과 행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 강사로 활동, 군민이 즐겁고 행복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회장을 역임하면서 6개 분과 300여 명의 회원이 소속한 분과별 회원 간 화합도모 및 역할분담을 통한 부안군 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김지회장은 군민들에게 예술문화욕구 충족시키려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연장을 마련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은 수도권 귀농학교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개최했다.

부안군,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제1기 수도권 귀농학교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변산농협수련원과 부안군 귀농 선도농가 사업장을 방문으로 운영됐다.

이번 교육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정착희망지역으로 초대하여 현지를 생생하게 느끼며 하며 귀농귀촌에 필요한 맞춤형 각종 정보의 체계적 전달과 선도 귀농 성공사례 등 다양한 체험과 견학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적

응의 기회와 희망을 부여하였다.

첫날 부안군수는 흥연에서 ‘중국을 대비 6차 산업의 중심지와 새로운 비전의 땅 새민금의 도시 부안에서 지친 심신을 훈링하고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고 말하고, 귀농귀촌협의회의 활동 소개, 부안군 농업정책과 지도사업,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귀농귀촌 설계 항목별 이해시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과 마실 길 탐방 오디농장과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첨화대 만찬주!
부안강산봉주를 선택했습니다.

Chungwae Daegak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봉주와 함께 오디주의 칠기장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깊은 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물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달도와 질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은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양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angsan Bokju

GIFT SET 1ea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ea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4ea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ea | 375ml 5ea/13% | GIFT SET 6ea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Bulleung Chilgi

GIFT SET 1ea | 750ml 2ea, 잔 2ea/13% | GIFT SET 2ea | 750ml 2ea, 잔 2ea/13% | GIFT SET 3ea | 750ml 3ea, 잔 3ea, 오프너

Buljang Chilgi

GIFT SET 1ea | 750ml 2ea, 잔 2ea/13% | GIFT SET 2ea | 750ml 2ea, 잔 2ea/13% | GIFT SET 3ea | 750ml 3ea, 잔 3ea, 오프너

부안 강산 봉주
Premium Obdi Wine

TEL : 063-564-9960
www.gangsanwine.com